

大伴旅人論

金 成 俸

(人文大 日語日文學科)

차 례

1. 序
2. 大宰帥 以前
3. 大宰帥 時代
4. 大納言 時代
5. 結

1. 序

「萬葉集」의 作者로서 大伴氏一族이 「萬葉集」에서 차지하는 比率은 높다. 그들이 作家한 노래는 대략 769余首가 된다. 따라서 대충 줄잡아 「萬葉集」 약 4500여首 중에서 그들이 차지하는 比率은 17%에 달한다. 이 중에서 特出한 歌人은 旅人和 家持인데 本考에서는 旅人을 택하여 「續日本紀」의 記錄과 「萬葉集」에 실려 있는 그의 作品을 分析하면서 作家와 作品을 體系的으로 分析하고자 한다. 그래서 그 당시 旅人의 悲劇은 무엇이고 또 그가 바라보는 現實認識은 무엇이었는가를 考察해서 旅人을 再評價하고자 한다.

萬葉集 第三期의 歌人 大伴旅人에 대한 現在 研究 중에서 가장 많이 取扱하고 있는 것은 「讚酒歌十三首」이다. 그러나 本考와 같이 大伴旅人을 眞正面에서 捕捉해서 作家論, 作品論을 綜合的으로 體系的으로 研究한 者는 없다.

大伴旅人은 두 가지 歌風에 의해 作歌를 했는데, 그 하나는 現實

의悲哀感이나苦惱를 노래했다. 또 다른 하나는抒情的이고非現實的인 노래이다.

전자에 속하는 것은現實的인嘆老와歸京·望郷의 끊임없는苦惱 혹은任地에서 죽어버린 아내의 죽음을哀悼하는 노래를 짓기도 했다. 후자에 속하는 것은老莊的教養에 의해豊富な夢想의境地를 그리고 있다. 예를 들면 아름다운松浦川の 선녀들과 교환하는 이야기를 노래하기도 하고,梅花의宴會(梅花の宴)에서 지은「わが園に梅の花散るひさかたの天より雪の流れ來るかも」라는 노래에서처럼幻想的인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다.

本考에서는 또 이와 같이歌風の變貌의理由와 또現實과非現實 속에서憧憬은 과연 무엇이었는지도 살펴보고자 한다.

2. 大宰帥 以前

『萬葉集』에 大伴旅人の 作品은 作者未詳歌를 포함하지 않는가에 따라 여러 說이 있지만 77首(長歌 1首, 短歌 76首)로 보고 있다. 그리고『懷風藻』에 漢詩 1首가 있다. 그 中 大宰帥 以前의 旅人の 作은 神龜元年(724) 聖武天皇이 卽位한 後 吉野에 行차했을 때의 長歌(卷3, 315, 316)와 年代不明의 敍景歌(卷3, 299)뿐이다. 따라서 그의 作品의 大部分은 中納言 兼 大宰帥로서 大宰府에 赴任하고 나서의 것이다.

그의 生涯에 關한 公式記錄은『續日本紀』 元明天皇 和銅三年(710)의 記事에

「……左將軍正五位上大伴宿称存旅人……」

라고 보이는 것이 最初로 그 以前의 官人生活에 關한 公式記錄은 찾아볼 수 없다.

그의 죽음에 대해서는『續日本紀』에 天平三年(731)으로 記錄되어 있고 그 해에 지은 詩 1首(初春宴に侍す)를 記錄하는『懷風藻』에「年六十七」라는 記錄에서 보면 앞에서 본 그의 最初의 記錄

때는 그의 나이는 46세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 後 『續日本紀』에 나타난 記事만으로 그의 生涯를 羅列해 보면,

和銅四年(711) 4月	從四位下(47세)
” 七年(714)11月	左將軍(50세)
靈龜元年(715) 1月	從四位上(51세)
” 5月	中務卿
養老二年(718) 3月	中納言(54세)
養老三年(719) 1月	正四位下(55세)
” 9月	山城國의 攝官
養老四年(720) 3月	征隼人持大將軍(56세)
” 6月	西方出征에 대해서 그 忠勤을 위로하는 조칙
” 8月	旅人만 歸京을 재촉하는 조칙
養老五年(721) 3月	從三位(57세)
神龜元年(724) 2月	正三位(60세)
天平三年(731) 1月	薨去(67세)

와 같다. 여기서 注目하고 싶은 것은 神龜元年(724)부터 天平3年(731) 正月까지 사이에 關한 記錄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결국 이 期間에 旅人が 大宰帥에 임명되었다는 事實도 『萬葉集』에 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다.

왜 『續日本紀』에 이와같이 旅人の 記錄을 빠뜨리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旅人は 왜 大納言 昇進은 커녕 高齡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大宰府까지 내려가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인가.

大伴씨의 系譜는 멀리 神話時代에까지 치올라 가서, 天孫降臨 때 天忍日命을 祖로하고, 그 3세의 孫인 道臣命은 神武天皇이 東征하였을 때 많은 武勳을 세운 바 있고, 大伴氏에 관한 記事는 『日本書紀』에 많이 보인다. 大伴氏는 이러한 傳承을 등지고 名門貴族으로서 皇室의 信賴를 받아온 것은 事實이며, 大伴一族은 이것을 자랑으로 여겨 대대로 皇室에 忠誠을 바친 것도 틀림없는 事實일 것이

다. 이런 大伴氏가 權勢와 榮光을 누렸던 時期는 壬申之亂(672)이 일어나자 大海人皇子(後에 天武天皇) 편에 서서 武勳을 세우고 나서다. 그러나 大化改新(645)以後 擡頭한 新興勢力인 藤原氏에게 차츰차츰 밀리기 시작했다. 大化改新의 때 功勳을 세운 藤原鎌足의 아들 藤原不比等の 時代가 되면 大伴旅人の 父親 大伴安麻呂가 701년 中納言이 될 때 藤原不比等は 大納言, 安麻呂가 705년 大納言이 될 때 不比等は 708년에 右大臣이 되어 항상 大伴氏보다 上官으로서 實權을 잡고 있다는 것에서 알 수 있다. 따라서, 大伴氏는 天武·持統天皇 時代以後부터는 不安定한 位置에 있었고 藤原氏와 對抗하고 있었다고 보여진다.

養老四年(720) 8月 30日에 藤原不比等가 죽자 養老元年(721) 正月에 長屋王는 正三位大納言에서 從二位右大臣으로 昇進하고 旅人(57세)는 藤原不比等の 아들 武智麻呂(42세), 房前(41세)와 함께 從三位(中納言)로 昇進한다.

그리고 神龜元年(724)에 元正天皇의 讓位에 의해서 聖武天皇이 卽位해서 2月에 人事가 있었다. 그 때 從二位右大臣 長屋王는 正二位左大臣으로 昇進한다. 그리고 養老2年(718)에 旅人和 中納言이 된 多治比池守가 大納言이 된다. 그리고 旅人는 武智麻呂, 房前와 똑같이 官位한 從三位에서 正三位로 昇進하고 원래대로 中納言이 된다.

이와 같은 人事 다시 말해서, 多治比池守가 大納言이 된 것은 일찌기 左大臣인 多治比嶋의 아들이기 때문이고, 武智麻呂와 房前도 中納言이 된 것도 持統·文武朝 以來 부친인 藤原不比等の 實績에서 보면 順當¹⁾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藤原氏에 대한 待望의 外戚人事에 대해서는 旅人는 말할 수 없었지만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본다. 왜냐하면 定員 2名의 大納言의 자리에 自己와 같이 中納言이 된 多治比池守가 昇進을 하더라도 1名의 缺員이 있는데, 自己는 昇進하지 못하고 自

1) 土橋寬, 「萬葉開眼(下)」, 日本放送出版協會, 1983. p.11.

己보다 15,16세가 적고 또 自己보다 2年이나 늦게 和銅6年(713) 正月에 從四位下에 임명된 武智麻呂와 그리고 房前와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속으로 울분을 느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 후 旅人は 長屋王을 中心으로 하는 皇親政治와 藤原氏를 中心으로 하는 外戚政治의 틈바구니 속에서 살게 되었다. 長屋王는 不比等の 死後 大納言에서 右大臣이 되면서 政界를 이끌어 가기 시작했다. 그 後 神龜元年(724) 聖武天皇이 즉위하자 그는 政治의 最高의 地位인 左大臣이 되어 政治, 軍事의 權限을 掌握하여 皇親政治의 復活을 꾀하고자 했다. 그래서 그는 皇親政治家로서 當然히 藤原氏의 外戚政治에 批判的이었다. 따라서 不比等の 아들들은 그들의 支配 體制를 만드는 데 長屋王는 방해가 되었다.

이러한 대립 속에서 藤原氏는 長屋王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의 側近者들부터 서서히 멀리시켜야 했다. 물론 長屋王와 旅人와의 關係는 旅人が 中納言으로서 左大臣長屋王의 아래에 있었던 것 以上으로 特히 密接한 關係가 있었던 지는 분명하지 않다²⁾고 하지만 옛날부터 大伴의 家系에서 본다면 당연히 皇親族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後에 大伴旅人の 九州轉任도 이러한 움직임의 複線이라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空氣 속에서 神龜元年(724) 聖武天皇이 卽位 後 그해 3月 吉野 行차가 있었다. 그 때 大伴가 勅을 받들고서 지은 노래이다.

暮春之月，幸芳野離宮時，中納言大伴卿，奉勅作歌1首并短歌，未逕奏上歌。

み吉野の芳野の宮は山柄し貴かるらし川柄し清けかるらし天地と長く久しく萬代に變らずあらむ行幸の宮 (卷3, 315)

昔見し象の小河を今見ればいよよ清けくなりけるかも (卷3, 316)

여기서 題河「未逕奏上」라는 背後에는 앞에서 언급한 그 當時의

2) 前掲書.pp.15-16.

複雑한 事情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 그러면 그것을 살펴보자. 위 노래는 實際로 旅人が 天皇의 勅을 받들고서 그것에 應해서 만든 것인데 왜 奏上되지 않았던 것인가. 위 노래는 吉野離宮을 둘러싸는 山水의 尊貴함과 清明함을 讚美하고 離宮의 万代長久를 축복하는 內容이다. 여기서 吉野宮이란 大海人皇子(후에 天武天皇) 天智天皇 治世 末年(671)에 皇位繼承을 둘러싼 紛爭을 자진해서 피하고 僧이 되겠다는 핑계로 몸을 숨겼던 것이다. 여기서 大海人皇子는 壬申之亂(672)을 謀議해서 近江朝廷(天智天皇이 即位한 大津京에서 그의 아들 大友皇子가 中心)을 打倒하고 勝利를 이끈 場所이다. 따라서 大海人皇子와 그의 부인 鸕野鸕女(후에 持統天皇)은 잊을 수 없는 因緣의 場所이었다. 그래서 大海人皇子는 壬申之亂을 勝利한 후 672年 天武天皇(40대)으로 即位한 뒤 以後 天武天皇은 吉野離宮에 皇女와 草壁, 大津, 高市, 河嶋, 忍壁, 芝基의 六皇子를 이끌고 行차해서 天皇의 死後 生母를 달리하는 皇子間의 皇位를 둘러싼 紛爭을 막기 위하여 草壁의 主皇太子에게 忠誠을 盟約시켰던 곳이다. 따라서 壬申亂 以後 吉野는 國歌統治로서 힘을 불려일으키는 皇統의 聖地와도 같은 곳이다. 이와 같은 意味를 가지는 吉野 行차는 天武天皇(40대)부터 시작하여 天武 死後 持統天皇(41대)은 在位 8年間에 21回를 記錄한다. 그러나 持統 以後는 文武(42대) 2回, 元正(44대) 1回, 聖武(45대) 3회가 高작이다. 이런 点에서 吉野는 天武·持統天皇과 가장 關係가 깊은 곳인 반면에 大伴家系도 잊을 수 없는 地域이었다. 그것은 앞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大伴氏가 壬申之亂 때 吉野 땅에서 天武天皇 편에 서서 功勳을 세워 天武·持統天皇 時代에는 榮光과 繁榮을 누리게 해준 土地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위에서 본 大伴旅人의 노래에 대해서 伊藤博씨는

「旅人は長歌の初二句を天武紀の童謡の昌頭の「み吉野の吉野の鮎」をふまえたものと指摘し、これは天武持統朝の吉野行幸を意識した野心的な作であった」³⁾

라는 것과 같이 天武·持統朝의 吉野 행차의 印象 등의 이미지를 거듭하고 있다.⁴⁾ 旅人が 以前에 吉野에 간 적이 있는 지에 대한 記錄은 없지만 持統天皇의 31회에나 되는 행차에 따라간 可能性은 그의 年齡에서 생각하면 충분히 있다고 본다. 그것은 앞의 記錄에서 計算해보면 그의 出生은 天智天皇4年(665)에 태어났다. 그렇다면 天武·持統天皇 時代에는 血氣旺盛한 青年期이었고 大伴家系의 繁榮을 구가하는 時代이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今) 時代 즉 新興勢力인 藤原氏에게 밀리고 있는 이 時點에서 옛날(昔) 즉 그가 젊었을 때 大伴家系의 榮光의 時代이었던 그 옛날 屢次 吉野 행차에 供奉한 天武·持統時代(白鳳時代의 盛期 792)를 追憶해서 노래한 것이다.⁵⁾ 따라서 앞에서 본 노래(316)의 지금(今)이라는 時代精神의 低流에는 白鳳時代의 憧憬이 潛在해 있다. 白鳳時代란 한마디로 要約하면, 天武·持統朝를 中心으로 하는 古代의 強力한 天皇中心의 專制的 律令國家의 시대로 皇室 勢力의 盛大를 보인 理想과 榮光의 時代였다.

이와 같은 意味를 包含한 노래를 무엇보다 牽制해야 할 대상이 되는 皇室(長屋王) 側近인 旅人が 歌作했기 때문에 藤原氏는 무슨 구실을 삼아 奏上하지 못하도록 했을 가능성이 있다. 다시 말해서 中納言이라는 臺閣의 要員 3人 중에서 旅人를 제외한 두 명의 藤原氏(武智麻呂, 房前)는 旅人が 우선 宮廷歌人이 아니고 牽制해야 될 皇室側近의 官僚라는 點에서 그에 대한 警戒的 措置로서 위와 같은 手段을 취한 것이라고 본다. 그것은 그 다음 해인 725년에 牽制해야 할 對象이 아닌 宮廷歌人 山部赤人は 旅人和 비슷한 吉野贊歌(923~927)를

やすみししわご大君の高知らず吉野の宮は疊づく青垣隱り川次の清き
河内を……(923)

3) 小野寬, “大伴旅人”, 國文學解說と教材の研究 第30卷13号11月号, 1985, p. 53.

4) 平山城兒, 大伴旅人遺逸, 笠間書院, 1994, p. 240.

5) 井村哲夫, “憶良・旅人の場合-山水有情”, 國文學解釋と教材の研究 第33卷1月号, 1988, p. 92.

와 같이 해도 奏上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 後 旅人은 결국 聖武帝가 象徵하고 있는 藤原氏의 成勢의 微少한 影響을 받아 그의 大納言 昇進의 바람과는 달리 63세라는 高齡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大宰府로 下向하게 되었다고 본다.

大宰帥의 職掌에는 管内의 普通의 政治 外에 隼人(옛날 九州 南部에 살던 種族)나 外國에 대한 武備, 藩客과의 應接饗諫, 歸化人의 處理 등이었다. 武에 關係서는 旅人은 가문에서 말해도 實戰의 經驗(征準人持人將軍)에서 말해도 나무랄 데 없는 有資格者일 뿐만 아니라, 外客과 應接에도 옛날부터 一族의 혈통에 따른 自然스런 것이었다. 따라서 여러 가지 方面에서 보더라도 旅人의 大宰府帥는 順當한 것이었다⁶⁾고 생각된다. 그러나 旅人의 立場에서는 大宰帥의 赴任은 九州의 總帥로서 一大實力者이더라도 中央執權의 時代에 있어서 新興勢力으로 부터 疎外되는 것이고 具體的으로 말해서 中央政權으로부터 隔離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 自身은 이것을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은 수많은 노래가 강한 望郷의 念을 노래하고 있는 것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3. 大宰帥 時代

大宰府는 西海道를 管轄하고 對外關係의 여러 일을 관장하는 要衝임에는 틀림없지만 風土的인 실체는, 「鄙」에 지나지 않았다. 그 當時 中央의 「都」에는 貴族들의 웅장한 邸宅이 줄지어 서 있고 大寺院의 堂塔이 우뚝 서 있지만 地方의 庶民들은 山上億良의 貧窮問答歌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짜부라진 오막집 봉당에 짚을 깔고, 조각 조각 찢어져 축치진 누더기만을 걸치고 먹을 것도 제대로 없는 아주 가난한 生活을 하였다. 따라서 地方(鄙)에 내려간 官人들은 別世界와 같은 「鄙」에서 하루라도 빨리 脫出해서 華麗한 「都」를

あをによし奈良の都は咲く花のにはふがごとく今盛りなり

6) 五味智英, 萬葉集の作家と作品, 岩波書店, 1982, p.156.

(小野老) (卷3,

328)

와 같이 憧憬하면서 「都」에의 還元을 지향하였다. 물론 旅人も 그런 마음이었다. 그는 지금 本意가 아니게 어쩔 수 없이 大宰府에 내려가지만

わが行きは久にはあらじ夢のわだ瀨にはならずて淵にあらぬかも

(卷3, 335)

와 같이 오래지 않아 다시 「都」로 돌아갈 것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赴任할 때 사랑하는 妻 大伴郎女와 함께 九州의 大宰府에 온 것이다. 그것은 그의 노래 「天平二年庚午冬十二月, 大宰帥大伴卿向京上道之時作五首(卷3, 446~450)」에서 확실하다.

그의 大宰府의 就任의 年月에 대해서는 여러 說이 있지만 『續日本紀』에 記録을 빠뜨리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다. 다만 『萬葉集』의 題詞나 左注

神龜五年戊辰大宰帥大伴卿思戀故人歌(卷3, 438~440 題詞)

右神龜五年戊辰大宰帥大伴卿之妻大伴郎女遇病長逝焉……

(卷8, 1472 左註)

에 의하면 늦어도 神龜 5年(728)에는 大宰帥로서 筑紫에 있었던 것은 확실하다.

旅人が 大宰府에 赴任하자마자 또 하나의 큰 충격은 사랑하는 妻 大伴郎女の 죽음이었다. 旅人の 妻는 大伴郎女 1名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子女는 家持, 晝持, 留女가 있었던 것은 확실한데, 이 3人の 母親은 大伴郎女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旅人が 그의 妻 중에서 가장 사랑했던 사람은 大伴郎女인 것 같다. 그것은 大伴郎女の 죽음으로 인하여 그를 그리워하는 많은 노래를 歌作하는 契機가 된 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만약 旅人の 妻가 죽었다는 事件이 없었다면 筑紫에 있어서 旅人和 憶良의 旺盛한 作歌活動의 直接

的인 契機가 없었을 것이다.⁷⁾

旅人は 妻가 죽자 「喪葬令」(京官三位條)

凡京官三位上遭祖父母 · 父母及妻喪, 四位遭父母喪, 五位以上身喪,
竝奏問. 遣使弔.

의 規定에 따라서 妻의 죽음은 都(朝廷)에 使者를 보내서 天皇에게
奏上되었다. 그래서 式部大輔인 石上朝堅魚가 弔問의 勅使로서 下
向하여, 大宰府에 到着한 것이 神龜5年(728) 陰曆 4月 中旬에서
下旬이었다. 그 때 堅魚가 弔問하고 아울러 物件을 下賜했다. 그
일이 끝나고, 驛使堅魚와 大宰府의 官人들이 함께 記夷城에 올라
眺望을 즐긴 날에 堅魚가 부른 노래

霍公鳥來鳴き響もす卯の花の共にや來しと問はましものを(卷8.1472)

와 이것에 旅人が 和答한 노래

橘の花散る里の霍公鳥片戀しつづ鳴く日しそ多き(卷8. 1473)

에서 보면 가령 堅魚는 公的인 弔問으로 旅人の 슬픔과는 無關係로
노래했다고 해도 그것에 和答한 旅人は, 妻를 잃은 슬픔을 가지고
妻를 그리워하는 自己의 心情에 이끌려 노래한 것이다. 그런 点에
서 時鳥를 노래하면서도 그 뒤에는 妻를 잃은 旅人の 슬픈 마음이
內在되어 있다.

앞의 노래와 거의 같은 時期에 妻의 죽음을 슬퍼하는 旅人の 노래

神龜五年戊辰, 大宰帥大伴卿, 故人を思戀ふ歌

「愛しき人の纏きてし數栲のわが手枕を纏く人あらめや」(卷3.438)

右の一首は, 別れ去にて數句を経て作る歌

에서는 旅人は 妻가 죽고 나서 數句은 너무나 傷心해서 노래를 읊
을 氣分도 되지 못하고 悲嘆으로 지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7) 伊藤博, 萬葉集の表現と方法(上) 古代和歌史研究, 塙書房, 1987, p.42.

그리고 그 슬픔이 깊어감에 따라 마침내 그 해 6月 23日에 「凶問に報ふる歌」를 만들었다.

禍故重疊，凶問累集。永懷崩心之悲，獨流斷腸之泣。但依兩君大助，
傾命纔繼耳。(筆不盡言，古今所歎)

世の中は空しきものと知る時しいよよますます悲しかりけり(卷
5.703)

이 노래의 前書에 해당하는 漢文 중에 「凶聞」이라는 것은 弔問의 意味가 아니고 凶事의 通知라는 意味이다.⁸⁾ 따라서 旅人의 妻가 죽은 後 다시금 「都」에서 旅人의 곁으로 무언가 나쁜 通知가 계속 해서 전해왔다고 解釋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 노래는 妻의 죽음 그것 自體에서 觸發된 슬픔만을 노래한 것이 아니다⁹⁾고 보는 面도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解釋을 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禍故重疊」에서 禍란 大宰府의 赴任과 妻 大伴郎女の 죽음이다. 이것이 重疊한다는 意味이고, 「凶問累集」이란 旅人의 地位가 높기 때문에 弔問의 사람이나 使者가 누차 旅人의 저택에 모여온다는 意味이다.¹⁰⁾ 그리고 「兩君」이란 누구인지 모른다¹¹⁾고 하지만 凶問(妻의 죽음)을 「都」에 전한 使者와 「都」에서 내려온 慰使(앞 노래의 卷8. 1472의 作者 堅魚)의 두 사람인 듯하다. 따라서 이 노래는 全體的으로 妻의 죽음을 슬퍼하는 노래이다. 이 노래에 붙여진 漢文의 末尾 2句는 周易에서 따온 書簡體의 것¹²⁾인데 여기서 기울어져 가는 목숨을 간신히 이을 뿐이라는 意味의 句 「頃命纔繼耳」에서 「頃」라는 意味는 「衰」, 「危」라는 뜻으로 解釋할 수 있다.¹³⁾ 그런 点에서 보면 旅人는 사랑하는 妻의 죽음으로 인해 自己의 生命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自己의 老衰를 깊게 깨달은 것 같다.

8) 平山城兒. 前掲書. p.242.

9) 前掲書. p.245.

10) 窪出空穂. 萬葉集評釋 第4卷. 東京堂出版. 1984. p.26.

11) 前掲書. p.26.

12) 稻岡耕二. 上代日本文學. 放送大學教育振興會. 1992. p.55.

13) 前掲書. p.56.

그 다음에는 노래를 보자. 「世の中は空しきもの」라는 表現에서 「世の中」는 佛教思想에서 말하고 있는 것으로 現世라는 意味이다. 「空しき」는 마찬가지로 佛教思想語로서 즉 恒久性이 없고 流轉해서 그치지 않는다는 意味로 無常이라는 語에 해당한다.¹⁴⁾ 그런 点에서 보면 이 表現은 古來佛教의 無常觀으로 노래한 것이다. 宗教心이 부족한 旅人も 自己 妻의 죽음이라는 現實에 접하자, 佛教의 無常觀이 强하게 작용하고 있다¹⁵⁾고 한다. 그러나 이 노래는 佛教의 無常觀에 의한 것이 아니다. 「空しき」라는, 語義에 대해서 많은 先進이 指摘하고 있지만 無常의 觀念이 없는 것이다. 佛教의 無常觀이란 生滅을 輪廻하고 깨닫고 悲傷의 慟哭을 없게 해서, 緩和시켜서, 淡淡한 情動으로 改變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觀念이다.¹⁶⁾ 만약 旅人が 그의 妻의 죽음에 대한 悲傷에서 解放되려고 해서 佛教의 無常觀에 의해서 노래한 것이라면 이 노래는 이 세상은 빈 것을 처음으로 깨달을 때(世の中は空しきものと知る時)는 그것에 의해서 그는 마음의 아픔을 救濟받아서 下句는 역시 덕분에 自己의 悲傷의 마음이 편안해졌다라고 豫想된다. 그런데 下句는 앞 句의 끝 「……知る時し」에서 强意의 助詞 「し」의 作用으로 인해 나의 슬픔은 救濟되기는 커녕 오히려 「いよよますます悲しかりけり」(더욱더 슬퍼졌다)라고 人間的인 슬픔에 되돌아와서 苦惱를 나타내고 있다.¹⁷⁾ 이와같은 絶望의 切迫한 形態에 對한 悲泣은 佛教의 無常觀과는 심하게 矛盾된다. 따라서 이 노래는 佛教의 無常觀과는 關係가 없고, 旅人は 自己 妻의 죽음이라는 絶望的 悲哀의 슬픈 現實을 純粹體驗하는 것에 의해서 이 世上의 모든 存在를 空이라는 人間的 人生虛假觀을 완전히 믿고 있다. 다시 말해서 旅人は 妻의 죽음으로 인하여 佛教의 無常觀에 反撥하여 虛無絶望의 方向으로 기울어졌다고 본다. 旅人の 노래 77首 중에서 序에도 歌詞에도 佛教를 肯定하는

14) 窪田空穂, 前掲書, p.27.

15) 森脇一夫, 萬葉美意識, 櫻楓社, 1974, p.95.

16) 前掲書, p.95.

17) 高木市之助, “舍人人麻呂・憶良と旅人”, 高木市之助全集 第三卷, 講談社, 1976, p.148.

것과 같은 表現은 없다. 그 例는 다음의 讚酒歌 13首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旅人の 노래 77首 중에서 또 하나의 「空しき」도

人もなき空しき家は草枕旅にまさりて苦しかりけり (卷3. 451)

에서 보면 佛敎의 無常觀과는 關係가 없고 下句의 「旅にまさりて苦しかりけり」에 反應을 주면서 旅人の 悲愁의 情을 더욱더 깊게 하는 것이다.

앞에서 본 旅人の 「凶問に報ふる歌」에 의해서 憶良는 日本挽歌 (卷5. 794~799)를 製作하는 契機가 되어 그 노래를 그 해 7月 21日 大伴郎女の 百日 追慕供養 때 旅人에게 바친 것으로 推定되고 있다. 그 內容은 憶良가 旅人の 妻, 郎女の 죽음을 哀悼하며 읊은 것이지만 꼭 自己 妻의 죽음을 哀悼하는 것같이 노래하고 있다. 여기서는 생략하고자 한다.

그 다음 해 天平1年(729)은 激動의 해로 長屋王의 變이 일어났다. 藤原氏는 神龜 五年(728)에 旅人를 警戒의 措置로서 大宰府로 보내고 나서 더욱 一步 躍進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左大臣長屋王의 存在가 거의 唯一의 障害이었다. 그러자 神龜5年(728) 9월에 皇太子가 죽자 젊은 聖武天皇의 슬픔을 교묘하게 利用해서 長屋王의 失脚을 陰謀했다. 天平1年(729) 2月 長屋王가 左道를 배우고 國家를 망하게 하려고 있다는 것이 密告되어 謀叛의 罪로 自盡되게 되었다. 이것이 長屋王의 變이다. 이와 같은 情報가 大宰府에 到着했을 때 旅人는 그것이 藤原氏의 陰謀인 것을 간파했을 것이다. 이로써 一時期 藤原氏와 對立해서 權勢를 쥐고 있던 皇親系의 實力者 長屋王가 悲慘한 最後를 마침에 따라 以後 政界는 皇親勢力은 後退하고 대신 藤原氏가 實權을 잡게 되었다.

이 變 直後 3月 4일에 群臣에 대한 昇敍가 있어 이 때 武智麻呂는 中納言에서 大納言으로 昇進하고, 大宰府에서는 大宰小貳 小野老가 10年만에 從五位下에서 從五位上으로 昇進하게 되었다. 그

서 大宰府에서는 小野老 昇進 祝宴이 열렸다. 그 때 大宰小貳 小野老 1首(328)와 防人司佑 大伴四綱 2首(329~330)를 받아서 旅人は 5首를

吾が盛りまたをちめやもほとほとに奈良の都を見ずかなりなむ (331)

吾が命も常にあらぬか昔見し象の小川を行きて見むため (332)

浅茅原つばらつばらに物思へば故りにし里し思ほゆるかも (333)

忘れ草吾が紐に付く香具山の故りにし里を忘れむがため (334)

吾が行きは久にはあらじ夢のわだ瀨にはならずて淵にしありこそ (335)

와 같이 지었다. 이 노래들을 보면 旅人は 昇敍된 小野老를 축하할 기분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小野老가 昇進되는 날에 武智麻呂도 中納言에서 大納言으로 昇進해서 定員 2名の 大納言 자리를 池守와 武智麻呂가 차지한 까닭에 旅人の 昇進의 바람은 꺾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旅人は 이러한 現實의 政治的 狀況에서는 自己 生前에 두 번 다시 지금 首都인 平城京이 있는 奈良는 못 보고서 끝장이 나고야 말겠지 하면서 絶望의 모습을 露呈하고 있다(331). 이와 같이 首都(奈良)에 歸還이 絶望으로 변하자 그 다음에는 望郷의 念(332~335)으로 변하게 되었다. 그 속에는 旅人の 젊고 血氣旺盛했던 날에 燦爛했던 시대로의 回歸를 바라는 意識이 나타나 있다. 그는 自己 목숨이 변치말고 그냥 그대로 있어줬으면(吾が命も常にあらぬか) (332)라고 生에 대한 執着을 나타내면서 少壯의 날에 連累된 地域 즉 332에서는 「象の小川」(吉野), 333에서는 「故りにし里」(飛鳥), 334에서는 「香具山の故りにし里」(飛鳥), 335에서는 「夢のわだ」(吉野)의 回歸를 바라는 意識이 자연스럽게 되었다. 여기서 女人의 望郷의 念이 吉野에서 시작하여 吉野로 되돌아가는 構造로 되어 있다는 것은 旅人の 진짜 望郷의 對象은 「吉野」이다. 「吉野」라는 것은 白鳳이라고 칭해지던 天武·持統朝의 날 등への 回歸라고 본다. 이것은 이 때는 皇室絶對扈從의 精神을 傳統的으로 가지고 있는 보수적인 大伴一族으로서는 皇室勢力의 盛大를 歷史上 처음으로 보인 白鳳의

盛期는 理想과 榮光의 時代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狀況에서 旅人는 時代와 社會의 僞善의인 성질에 대한 反撥로 讚酒歌 13首(338~350)를 製作하게 되었다.¹⁸⁾ 다시 말해서 旅人는 앞에서 본 그 當時 中央의 움직임에 壓迫과 焦燥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¹⁹⁾ 그러나 藤原氏의 勢力에 어떻게 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 불평을 쏟을 곳이 없는 憤懣을 술에 依託해서 다음과 같이 讚酒歌 13首

- 驗なきものを思はずは一坏の濁れる酒を飲むべくあるらし (卷3 · 338)
 酒の名を聖と負せし古の大き聖の言の宜しさ (339)
 古の七の賢しき人たちが欲りせしものは酒にしあるらし (340)
 賢しみと物言ふよりは酒飲みて酔ひなきするし優りたるらし (341)
 言はむすべせむすべ知らず極まりて貴きものは酒にしあるらし (342)
 なかなか人にあらずは酒壺になりてしかも酒に染みなむ (343)
 あな醜賢しらをすと酒飲まぬ人をよく見ば猿にかも似る (344)
 価なき宝といふとも一坏の濁れる酒にあにまさめやも (345)
 夜光る玉といふとも酒飲みて心を遣るにあにしかめやも (346)
 世の中の遊びの道にすずしきは酔ひ泣きするにあるべかるらし (347)
 この世にし楽しくあらば來む世には虫にも鳥にも吾はなりなむ (348)
 生者遂にも死ぬるものにあればこの世なる間は楽しくをあらな(349)
 默然居りて賢しらすは酒飲みて又ひ泣きするになほしかずけり (350)

를 노래한 것이었다. 古代 前期의 歌謠나 和歌 중에는 술(酒)을 禮讚한 노래가 몇 개 있다. 그러나 술(酒)의 世界 그것을 禮讚한 노래는 旅人의 노래뿐이다²⁰⁾고 말하는 것과 같이 旅人의 讚酒歌는 傳統的인 술의 노래와는 완전히 별도의 次元에서 發想되고 있다. 노래의 表現 基層 部分은 中國文學(漢籍佛典)에 依存하고 있다는 것은 中西進氏의 論에 詳細하게 言及되어져 있다²¹⁾고 하지만 그것

18) 井村哲夫, 前掲書, p.92.

19) 西郷信綱, 萬葉私記, 未來社, 1989, p.313.

20) 清水克彦, “讚酒歌の性格”, 萬葉論集, 櫻楓社, 1975, p.159.

21) 東茂美, “讚酒歌”, 古代詩の表現, 古代文學會編, 武藏野書院, 1982, p.101.

은 그의鬱憤을披瀝하는間接的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旅人は 이 노래 13首를 통하여 술(酒)의 세계를讚美하고 있지만 그讚美의敘述行間に 어떤 슬픔의感情이 감돌고 있다²²⁾는 것을默過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의 노래 338, 341, 343, 345, 346, 350에서 보면世俗의 세계에 대해서 술(酒)의 세계를讚美하면 할수록 슬픔의感情도 강해지기 때문이다. 물론 이 노래의 348에서 現世를 즐겁게 살 수 있다면 來世에는 벌레(虫)나 새(鳥)로 변해도 좋다는 생각과 349에서 現世에 執着해서 그 享樂을讚美하고 있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旅人は 단순한 享樂思想의 持主이었다고 斷定하는說에는 찬동할 수 없다.²³⁾ 이것은 그 當時 佛敎를 利用해서 權力을 擴大해 가는 藤原政權에 迎合한 佛敎徒를 擲揄하고 嘲笑하고 있는 것이다.²⁴⁾ 따라서 348, 349는 享樂을讚美하는 것은 단지 佛敎信仰을 全面的으로 부정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 노래에서 特히 痛烈하게 어떤 特定の 對象에 대한 擲揄 혹은 탄식에 대한 노래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²⁵⁾ 여기서 特定の 對象이란 341의 어진 체 무언가 짓거리는(賢しみと物いふ), 343의 이도저도 아닌 어설피른 인간(なかなかに人), 344의 점잖은 체 하는(賢しらをす), 350의 입다물고 잠자코 있으면서 착한 체 하는(默然居りて賢しらをす) 그런 人間像이다. 이와 같은 人間像은 長屋王 自盡 以後의 藤原四氏(武智麻呂·房前·宇合·麻呂)가 아닌가라는 것은 一般에게 말하여지고 있는 것이다.²⁶⁾ 여기서 이러한 人間像에 對極에 있는 것이 술(酒)이다. 따라서 旅人の 讚酒歌는 이러한 人間像을 不定하는 行爲로서 飲酒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人間像들의 世俗的 行爲에 대해서 旅人は 脫世俗的 行爲로서 飲酒인 것이다.

그러나 旅人は 이와 같은鬱憤에도 불구하고 藤原氏의 勢力이 더

22) 清水克彦, 前掲書, p.160.

23) 平山城兒, 前掲書, p.250.

24) 土橋寛, 前掲書, p.44.

25) 稻岡耕二 “憶良·旅人私記-讚酒歌をめくって-”, 國語と國文學, 1959·6, p.20.

26) 東茂美, 前掲書, p.106.

욱더 강대해짐에 따라 이 現實에서 自己로서는 어쩔 수 없었기 때문에 차츰차츰 이 現實에서 逃避해서 神仙的인 夢想의 世界에 빠진다. 그 夢想 속에서 旅人は 이제는 藤原氏의 新政權에 迎을 해야 歸京의 念도 이를 수 있다는 것을 깊게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長屋王 事件에서 8個月 後 그 해 10月 7日 長屋王 事件은 못 본 채 하고 藤原四兄弟 중에서 長屋王 事件에 直接 關係하지 않았고, 公正한 信賴를 받고 있는 房前²⁷⁾에게 神仙小說的인 尤흥을 가장해서 接近을 시도하였다.²⁸⁾ 그것이 旅人が 大宰府에서 對馬 結石山の 係枝로 만든 日本琴一面을 藤原房前에게 보냈을 때의 書狀(大伴淡等謹狀)과 노래(卷5, 810)이다. 이것에 대해서 房前의 答歌(811)는 더없이 鄭重하면서도 무언가 冷淡한 것을 느낀다. 이 때 旅人의 나이는 65세, 마지막까지 歸京의 念을 拋棄하지 않고 藤原四兄弟에게 無條件降服을 表明한 것이었다.

以後 旅人は 더욱더 現實의 憂悶을 잊기 위하여 反俗主義인 老莊思想을 憧憬하면서 神仙的 世界에 빠지게 되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老莊思想은 그 當時 排除되었다. 그것은 그 當時 老莊思想에 물들어 산 속으로 逃避하는 人民이 늘어나서 그것이 큰 社會的인 問題로 擡頭되었기 때문에 朝廷에서는 그런 者를 異端者로 取扱해서 形을 執行하였다는 것에서 잘 알 수 있다. 그렇다면 大君을 섬기는 大宰帥로서 自己의 儼然한 現實의 實生活은 禁令에 저촉되는 사도승이나 放浪者들을 指彈하지 않으면 안되는 立場에도 불구하고 旅人は 自己가 처해 있는 現實의 憂悶을 잊기 위하여 老莊的 神仙的 世界에 빠질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는 現實을 잠시 잊고 노래에 의한 風雅의 世界에 빠지게 되었다.

天平2年(730) 正月 13日 大宰帥 大伴旅人は 自宅에서 觀梅宴을 개최했다. 그 때 32名의 官僚가 出席해서 初唐詩序의 形式을 본떠서 梅花歌群(卷5, 815~852)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여기서 旅人は 漢文 序文과 노래 1首(822)를 作歌하였다. 노래 앞에 기록되어

27) 土橋寬, 前掲書, p.33.

28) 稻岡耕二, 前掲書, p.22.

있는 漢文 序文은 王羲之의 『蘭亭序』 등을 模倣한 正格의 漢文으로 中國 趣味의 濃厚함을 이야기하고 있다.²⁹⁾ 이 漢文 序文에는 하늘을 日傘으로 하고 땅을 座席으로 삼는(於是蓋天坐地)다는 快然自足を 이야기하면서 大自然에 逍遙하는 즐거움을 強調하지만 이 梅花歌群 31首 뒤에 이어지는 「貝外故郷を思ふ歌」(卷5, 847~848)와 「後に追和する歌」(同, 849~852)는 전혀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없다.

「貝外故郷を思ふ歌」

わが盛りいたく降ちぬ雲に飛ぶ薬はむともまた變若ちめやも(卷5, 847)

雲に飛ぶ薬食むよは都見ばいやしき吾が身また變若ちぬべし(同, 848)

를 보면, 「雲に飛ぶ薬」는 老莊神仙思想이 깃든 仙藥의 것으로 그것을 먹으면 長壽하고 구름을 타고 하늘을 날 수 있다고 하지만, 여기서 旅人は 그 仙藥을 憧憬하기보다는 「雲に飛ぶ薬」에 의탁해서 깊은 한탄 속에서 歸京의 念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다. 그 속에는 젊고 血氣旺盛했던 날에 燦爛했던 時代로의 回歸을 바라는 意識도 나타나 있는 것이다. 그 다음 「後に追和する歌」(卷5, 849~852)

わが宿に盛り咲ける梅の花散るべくなりぬ見む人もがも(851)

에서는 죽은 妻에 대한 追憶을 안타깝게 그리워하고 있다.

그 後 그 해 3月頃に 大宰帥 旅人は 管下の 松浦縣을 旅行해서 어떤 主人公이 松浦川에 놀고 아름다운 女子를 만나서 노래의 贈答을 주고 받는다는 風流한 虛構의 世界에 놀았던 「松浦河に遊ぶ」의 序文과 歌群(卷5, 853~863)을 만들었다. 물론 이 作品의 作者에 대해서는 여러 說이 있지만 現在까지 定說은 없다. 따라서 이 作品의 作者에 대해서 言及을 피하고자 한다. 序文과 歌群은 「文

29) 稻岡耕二, 上代日本文學, 前掲書, p.14.

選」과 唐代의 通俗小説 「遊仙窟」을 模倣한 것이다.³⁰⁾ 즉 이 作品은 唐의 張文成에 의해서 만들어진 虛構의 作品 「遊仙窟」의 構想을 根據로 해서 仙境에서 美女를 만나서 몇 번 贈答歌를 주고 받는다는 趣向은 同一하다. 그러나 原典의 「遊仙窟」에서는 張氏와 十娘과의 사이에는 始終 緊張된 對立關係가 存在하고 있다. 이에 반해서 旅人의 歌群에서는 蓬客等(855~857)과 娘等(858~860)은 對立關係가 없다. 兩者 사이 心情의 차이는 存在하지 않는다.³¹⁾ 그런 点에서 보면 旅人은 風流心을 前提로 해서 은근히 藤原氏에게 서로 對立없이 잘 지내보자는 意圖로 노래한 것이 아닌가 싶다. 그리고 이 作品에 나오는 玉島川에는 大和의 吉野川가 또 玉島川의 仙媛에게는 吉野川의 柘枝傳說의 仙女가 포개져 있는 것을 高木市之助氏가 指摘하듯이³²⁾ 이 作品의 「松浦河」³³⁾는 「懷風藻」所收의 詩에 있어서 仙境化되고 있는 吉野川를 意識하고 있다³⁴⁾고 한다면 旅人은 이와 같은 虛構의 幻想에 自己의 몸을 내맡기고 安息을 얻으려고 하는 그 속에서도 藤原氏와 對立關係가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窮極的으로는 大伴一族의 榮光의 시대인 追憶의 吉野 山川을 잊지 못하고 歸京의 念을 바라고 있는 것이다. 그의 마음 속에는 언제나 現實의 「鄙」의 風景을 바라보더라도 例를 들면,

帥大伴卿, 吉野の離宮を遙かに思ひて作る歌一首
 隼人の瀬戸の巖も鮎走る吉野の瀧になほしかずけり(960)

에서와 같이 追憶의 吉野 山川이 거듭되어져 있다.

이와 같은 望郷의 念에도 불구하고 天平2年(730) 6월에 旅人에게는 또 하나의 不幸이 다가왔다. 그것은 『萬葉集』卷4·566~7 左注를 보면 旅人은 갑자기 다리에 부스럼이 생겨서(忽生瘡脚) 목

30) 小澤正夫, 萬葉集と古今集, 新典社, 1992, p. 79.

31) 清水克彦, 前掲書, p. 188.

32) 井村哲夫, 前掲書, p. 93.

33) 지금의 佐賀縣東松浦山村에서 發하여, 濱崎玉島町에서 東쪽 바다로 잇는 玉島町.

34) 稻岡耕二, 前掲書, p. 74.

숨조차 위태로운 狀態에 빠졌다는 것이다. 그래서 죽음을 覺悟한 旅人は 朝廷에 驛使를 보내어 上奏하여, 庶弟인 稻公과 조카인 胡麻呂에게 遺言하고자함을 말하니 兩人은 勅에 의해서 下向해서 看病했다. 다행히 數十日後, 병은 나았지만, 이미 66세의 그가 이 病에 의해서 더욱더 老衰를 느꼈고 이제 餘命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깊게 自覺했음에 틀림없다. 그가 遺言하고자 하는 內容은 알 수도 없지만 자기 대를 이을 아들 家持가 겨우 14세이었기 때문에 大伴家の 將來에 대해서 不安 또는 藤原氏의 뛰어난 計略에 對處하는 方法 등에 대해서 말하였을 것이다.

4. 大納言 時代

旅人の 大宰府 滯留는 끝났다. 天平2年(730) 10월에 大納言 昇進하고, 11월에 歸京을 허락받는다. 단 『續日本紀』에 正式의 記事는 없고, 『萬葉集』 卷17, 3890의 題詞「天平二年庚午冬十一月大宰帥大伴卿被任大納言上京之時……」가 그 증거이다. 이와 같은 任官의 事情은 明記되어 있지 않지만 大納言 定員 2名(多治比池守와 武智麻呂) 중에서 多治比池守가 그 해 9月 30일에 죽었기 때문에 缺員에 대해서 武智麻呂와 形式的인 均衡을 맞추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歸京이 許諾된 理由는 藤原氏は 長屋王이 죽었기 때문에 老齡의 旅人를 警戒해야 할 必要가 이제 없었기 때문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들의 地盤도 확고히 構築시켰기 때문이다. 旅人 自身도 그와 같은 事情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꿈에서라도 그리워하는 都로 歸京해 보았자 허울좋은 榮譽에 不過한 것이고 老衰와 함께 그의 主導權에의 길은 그에게 열려 있지도 않고 이미 未來가 存在하지 않는다는 것은 짐작했다고 본다. 따라서 旅人は 기다리고 기다리던 歸京이 다가오자 歸京의 기쁨보다

歸るべく時はなりけり都にて誰が手本をか吾が枕かむ(卷3, 439)

京なる荒れたる家に獨り寢ば旅にまさりて苦しかるべし(同, 440)

와 같이 妻가 없는 서울(都)집의 허전함을 슬퍼하고 있다.

天平2年(730) 12月, 旅人は瀬戸内海를 통해서 歸京하지만, 歸京 途中 도모해안(ともの浦)을 지나면서 3首(同, 446~448), 미누메(敏馬)의 산부리를 지나면서 2首(同, 449~450) 전부

吾妹子が見しもの浦のむろの木は常世にあれど見し人ぞなき(同, 446)
妹と來し敏馬の崎を還るさに獨りし見れば涙ぐましも(同, 449)

와 같이 혼자 보는 現實의 風景에 筑紫 下向 때에 妻와 함께 본 過去의 回想 風景을 생각하면서 妻를 그리워하는 것이다.

그는 故郷의 집에 到着해서 3首(同, 451~453)도

人もなき空しき家は草枕旅にまさりて苦しかりけり(同, 451)
妹として二人作りしわが山齋は木高く繁くなりけるかも(同, 452)
吾妹子か植ゑし梅の樹見ることこころ咽せつつ涙し流る(同, 453)

와 같이 現實 風景에 妻와 같이 지낸 過去를 回想하면서 사랑하는 妻의 없음을 슬퍼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萬葉集』에는 旅人만큼 亡妻에 대한 思慕를 노래한 歌人도 드물다. 이것은 旅人が 亡妻에 대한 사랑이 깊었다는 것도 있지만 現實의 政治的 狀況에 대한 失望에 의한 것이다.³⁵⁾ 왜냐하면 앞에서 본 旅人の 노래는 그의 눈에 비친 風景은 언제나 幸福한 過去 追憶 속에 있는 感傷의 風景이었기 때문이다.

天平3年(731) 正月 27日の 『續日本紀』의 記事에는 「授正三位大伴宿称旅人」가 보인다. 그리고 그 해 여름 旅人は 病床의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죽기 直前 2首의 노래를 남기고 있다.

三年辛未, 大納言大伴卿, 奈良の家に在りて, 故郷を思ふ歌2首
しましくも行きて見てしか神名備の淵は淺せにて瀬にかなるらむ(969)
指進の栗柄の小野の萩が花散らむ時にし行きて手向けむ(970)

35) 土橋寛, 前掲書, p.27.

에서 보면 旅人は 病이 나으리라고 생각하고 싸리꽃(萩の花)이 떨어질 무렵 飛鳥地方의 「栗栖の小野」에 가서 祭祀지내려고 생각하고 있었다. 여기서 旅人が 祭祀지내려고 생각하고 있는 對象은 아마 大伴氏의 祖廟일 것이다. 그 神들은 首都를 멀리 平城京으로 遷都한 以後 祭祀지내는 것도 소홀히 했던 쓸쓸한 白鳳의 神일 것이다.³⁶⁾ 그러나 이것도 죽기 直前까지도 不可能하게 되었다.

이윽고 그 해 7月 25日 「續日本紀」에는 그의 薨去를 「秋七月 辛未,大納言從二位大伴宿稱旅人薨」와 같이 전한다. 그 때는 67세 (「懷風藻」)이었다.

旅人 死後, 資人余明軍이 旅人를 思慕하여 마음의 悲嘆을 이기지 못해서 지은 노래 5首 (454~458)

かくのみにありけるものを萩の花咲きてありやと問ひし君はも(455)

에서 보면 旅人は 젊은 날의 화려했던 白鳳時代의 飛鳥 地方으로 돌아 갈 수 없다는 運命을 알면서도 그는 죽기 直前까지도 싸리꽃(萩の花)이 피고 지는 故郷 飛鳥의 「栗栖の小野」에 대한 風景의 幻覺를 지울 수가 없었다. 아마 꽃의 香氣는 旅人 自身の 젊은 날의 모습임에 틀림없다.

5. 結

옛날부터 皇室 편에 서서 權勢와 榮光을 누렸던 大伴氏가 新興勢力인 藤原氏에게 밀리면서 中央政權으로부터 疎外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大伴旅人の 悲劇은 시작되었다. 그래서 그는 大納言 昇進은 커녕 高齡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大宰府로 下向하게 되었다.

그는 그 곳에서 妻의 죽음을 괴로워하면서 歸京을 바라지만 天平 1년(729) 2월에 長屋王의 自盡으로 인하여 旅人は 더욱더 昇進과

36) 井村哲夫, 前掲書, p.94.

歸京의 念은 絶望化되었다. 이와 같이 歸京의 念이 絶望으로 변하자 旅人は 젊고 血氣旺盛했던 날에 燦爛했던 「吉野」를 그리워하게 되었다.

이러한 狀況에서 旅人は 時代와 社會의 僞善的인 性質에 대한 反撥로 讚酒歌 13首를 制作하여 長屋王 自盡 이후 藤原氏에 대해서 痛烈하게 揶揄한다.

그러나 旅人は 이와 같은 鬱憤에도 불구하고 藤原氏의 勢力이 강대해짐에 따라 歸京을 하기 위해서는 藤原氏와 迎合하게 된다. 이때부터 旅人は 現實의 憂悶을 잊기 위하여 反俗主義인 老莊思想을 憧憬하면서 神仙의 世界에서 잠시 安息을 취하고자 한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젊고 血氣旺盛했던 날에 燦爛했던 追憶의 吉野의 山川을 그리워하는 것을 버릴 수가 없었다.

이와 같이 旅人は 언제나 現實의 「鄙」의 風景을 바라보더라도 그가 젊었을 때 大伴一族에게 權勢와 榮光을 누리게 해준 젊은 날의 追憶의 吉野를 생각하는 것은 晩年에 自己 생각대로 잘 되지 않는 現實의 政治的 狀況에 대한 失望, 그리고 自己의 老齡에 대한 鬱鬱한 思想의 抑壓에서 逃避하려고 하는 一種 自己 韜晦의 態度에 가장 이상적인 곳이었기 때문이다.

參考文獻

- 北山茂夫, 『天武朝』, 中公新書, 1991.
 古代文學會編, 『古代詩の表現』, 武藏野書院, 1982.
 西郷信綱, 『萬葉私記』, 未來社, 1989.
 稻岡耕二編, 『上代日本文學』, 放送大學教育振興會, 1992.
 五味智英, 『萬葉集の作家と作品』, 岩波書店, 1982.
 平山城兒, 『大伴旅人逍遙』, 笠間書院, 1994.
 伊藤博·稻岡耕二編, 『萬葉集を學ぶ』, 第3集·第4集, 有斐閣選書, 1978.
 上代文學會, 『萬葉の女人像』, 笠間書院, 1976.

- 小澤正夫, 『万葉集と古今集』, 新典社, 1992.
- 伊藤博, 『万葉集の表現と方法』, 塙書房, 1987.
- 土橋寛, 『萬葉開眼(下)』, 日本放送出版協會, 1983.
- 森脇一夫, 『萬葉の美意識』, 櫻楓社, 1974.
- 上田正昭外 6人, 「人物日本の歴史2」, 小學館, 1974.
- 尾崎暢殃, 「万葉集の形成」, 明治書院, 1981.
- 尾崎暢殃, 「万葉論考」, 明治書院, 1986.
- 川口常孝, 「人麻・憶良と家持の論」, 樓楓社, 1991.
- 實方清, 「万葉の美的世界」, 樓楓社, 1979.
- 下田忠, 「山上憶良長歌の研究」, 樓楓社, 1981.
- 清水克彦, 「万葉論集」, 樓楓社, 1975.
- 清水克彦, 「万葉論序説」, 樓楓社, 1987.
- 中西進, 「万葉集の比較文學的研究」, 樓楓社, 1972.
- 中西進, 「万葉の世界」, 中公新書, 1973.
- 久米常民, 「万葉集・時代と作品」, 樓楓社, 1975.
- 久松潛一, 「万葉集の新研究」, 至文堂, 1942.
- 久松潛一監修, 「万葉集講座 第2巻」, 有精堂, 1973.
- 星野五彦, 「万葉の展開」, 樓楓社, 1980.
- 金思燁, 「日本の万葉集」, 民音社, 1983.